

# 아파트 단위평면구성과 소비자의 견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relationship between Apartment Unit Plans and Consumer's Opinions

**Author** 함민정 Ham, Min-Jung / 정회원, 경희대학교 대학원 주거환경학과 석사  
오혜경 Oh, Hye-Kyung / 정회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전공 교수\*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academic researches about apartment unit plans and consumer's opinions, and then to analyze the co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us identify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ality of housing market and consumers' opinions. On the analysis of the apartment unit plans(66m<sup>2</sup> ~ 164m<sup>2</sup>) provided by top 8 construction companies from March 2004 to December 2008. The remarkable change compared to existing apartments i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bays. This displays construction companies are responding to consumer's opinions actively. However, there were spaces which did not or passively reflect consumer's opinions enough. Especially, front side allocation of bedrooms beside master bedroom, kitchen/dining room and L-D-K & LD-K installation of a door between entrance and a living room. These are opinions that companies need to make efforts to reflect on apartment unit plans as much as possible.

**Keywords** 단위평면, 소비자의 견  
Unit Plan, Consumer's Opinion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아파트 단위평면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과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건설사에서는 이에 부응하고자 다양한 계획을 시도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조사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아파트 단위평면에 대한 의견조사는 소비자가 거주해 본 후 그 경험을 통해 개선할 공간이나 자신이 원하는 공간 또는 이상적 공간을 조사·분석하여 앞으로 계획될 평면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이며, 산업체에서는 이와 같은 학술 연구를 참고하여 아파트 평면을 계획하게 된다. 이를 이상적인 방향에서 생각해 볼 때, 학계에서 연구한 소비자 의견이 산업체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평면에 세밀히 반영된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공간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아파트의 단위평면 자체를 분석한 연구와 단위평면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분석한 연구로 대별되었고, 이 둘을 함께 연결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단위평면 중 공간구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sup>1)</sup>을 조사한 학술연구와 실무적인 건설사 평면계획의 결과물을 조사하여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상관성<sup>2)</sup>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론적인 학술연구와 실무적인 산업체 결과물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의 이상과 주택시장의 현실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조사대상의 선정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2007년 시공순위 상위 8개 건설업체<sup>3)</sup>에서, 2004년 1월부터 2008

- 1) 소비자의 의견을 조사하는 어휘는 반응, 태도, 의식, 견해, 행태, 평가 등 다양하지만 이의 분석은 만족도, 선호도, 요구도, 중요도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각각 그 의미가 다르지만 소비자의 의견을 분석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모두 소비자의 의견으로 간주하였다.
- 2) 두 가지 사건이나 사물 사이에 서로 관계되는 성질이나 특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의견이 공급된 단위평면에 나타나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여 이 둘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 3)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ohk@khu.ac.kr

년 12월까지 전국에 공급한 브랜드 아파트로 이 중 판상형만을 추출하였다. 판상형은 전면과 후면이 외기에 오픈되고 양 옆면은 막혀있는 형태이나 탑상형(타워형)은 X, Y, L, D, □형 등으로 오픈된 면이 그, L 또는 D의 삼면 등이며 평면 또한 다각형, 사선 등 다양한 형태가 도출되므로 분석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그러나 탑상형에도 판상형에 준하는 평면<그림 1>이 있어 이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는 2007년 1월~3월과 2009년 1월~3월에 걸쳐 두 차례 진행되었으며 2007년 1월~3월의 조사 방법은 당시 각 건설사 홈페이지를 통해 2004년 1월~2006년 12월 까지 분양된 아파트 중 분양면적 66m<sup>2</sup>~164m<sup>2</sup>인 단위평면 모두를 조사하였다. 한편 2007년 1월~2008년 12월까지 분양된 아파트 단위평면을 조사한 2009년 1월~3월의 조사는 건설사들의 홈페이지 개편으로 두 건설사<sup>4)</sup>는 다수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개인으로 접촉하여 분양된 또는 분양하고 있는 거의 모든 평면도를 제공 받았다.

두 번째는 학술지 논문의 소비자 의견으로 논문의 선정은 한국연구재단 일급지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대한건축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의 문헌 검색에서 아파트, 집합주택, 단위세대, 단위주호, 평면구성, 소비자, 거주자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추출된 논문 중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에 일치하는 사항이 있는 논문만 발췌하였고 그 결과 총 16편이 선정되었다. 한편 소비자 의견이 실제 계획에 반영되어 실체화 되려면 최소한 2년 정도는 걸린다는 가정 하에 2002년 이전에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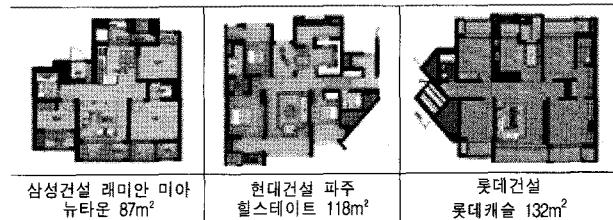
<표 1> 분석항목에 따른 선정논문의 관련 내용

연구자	년도	연구의 제목 (지면상 '---에 대한 연구' 부분은 생략하였음)	본 연구 관련내용 *			
			①	②	③	④
박인석, 김진환	2002	안방 후면배치 아파트평면의 거주자 반응 평가		✓		
오혜경, 김도연	2002	고급형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의 견해 및 선호 경향		✓	✓	
김진균 외	2002	아파트 공간구성 유형에 따른 거주자 공간사용 형태				✓
김상희, 안주영	2002	경남지역 전면3칸형 아파트의 공간이용행태 및 거주후 평가		✓		
이병영, 최경란	2003	주거공간 내 가족유형별 사용행태에 따른 실내공간 계획				✓
오찬옥	2003	지역성을 반영한 공동주거 평면디자인 개발				✓
오찬옥 외	2003	아파트 거주자의 평면유형별 평면구성에 대한 요구		✓	✓	
오찬옥 외	2004	거주자가 선호하는 아파트 평면구성 유형				✓
오찬옥 외	2004	컴퓨터 미디어와 컨조인트 분석방법을 이용한 소형아파트 평면구성 요소에 대한 거주자 선호분석				✓
방정훈, 오찬옥	2004	전면2실형과 3실형 아파트 평면특성 및 만족도 비교		✓	✓	
정은주 외	2004	소비자 소집단 워크샵을 통한 주부들의 공간요구 시향			✓	✓
이숙영, 이연숙	2005	우리나라 수도권 아파트의 주호공간 특성		✓		
오혜경, 함민정	2008	수도권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본 규모별 실 구성 요구		✓		
추선경 외	2008	전면3실형과 전면4실형 아파트의 평면특성 및 거주 후 평가	✓			
오혜경, 홍이경	2008	거주자 특성에 따른 아파트 각 실의 요구 및 계획 방향		✓		
최병숙 외	2009	대전지역 아파트 단위주호계획에 대한 거주자의 주거의식		✓	✓	

\*①:Bay수 ②:전면배치 ③:LDK구성 ④:현관-거실, 거실-식당-부엌의 개방성

4)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5) 분양면적 66m<sup>2</sup>~98m<sup>2</sup> (20평대), 99m<sup>2</sup>~131m<sup>2</sup> (30평대), 132m<sup>2</sup>~164m<sup>2</sup> (40평대)이며 예를 들어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m<sup>2</sup>라고 명기된 아파트는 66m<sup>2</sup>~98m<sup>2</sup>로 간주하였다.



<그림 1> 탑상형(타워형) 중 판상형에 준하는 단위평면

간된 논문은 제외하였다. 선정된 논문은 2002년, 2003년, 2004년, 2008년에 집중되어 있었고 2006년과 2007년에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표 1>과 같다.

## (2) 자료 정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평면도는 총 862개였고 이를 각각 PPT에 수록하고 면적별<sup>5)</sup>, 연도별로 나누어 정리 하였다. 조사의 세부항목은 Bay의 수와 전면에 위치한 공간(실), 거실-식당-부엌의 배치, 현관-거실-식당-부엌의 개방성으로 한정하였다. 그 근거는 오찬옥 외 2인의 연구<sup>6)</sup>에서 현관-거실의 개방성, 거실-식당-부엌의 개방성을 추출하고 아파트에서 Bay 수와 전면 배치되는 실에 따라 공간의 구성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견지에서 이들을 첨가하였다. 분석은 SPSS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 과정은 본 연구가 2차 자료인 평면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료의 변수화가 필요하였는데, 이를 위해 각 내용별로 조사대상 평면에서 추출된 해당 항목을 변수화하여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bay수는 평면도를 분석한 결과 2, 2.5, 3, 3.5, 4, 4.5의 총 6가지 항목으로 조사되어 이를 1번부터 6번까지 명목화하여 각각의 빈도, 백분율을 구하

6) 오찬옥 외 2인, 거주자가 선호하는 아파트 평면구성 유형,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2호, 2004 : 아파트 평면구성의 속성으로 안방과 거실의 크기, 현관-거실의 개방성, 거실-DK의 개방성, 욕실구성 방식의 4항목을 추출하였다. 여기에서 각 실에 관한 내용인 안방과 거실의 크기, 욕실구성 방식은 후속연구로 이어질 것 이므로 제외하였다.

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된 아파트 단위평면의 구성이 분양면적 및 연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소비자의 의견이 이들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 상관성 여부를 분석<sup>7)</sup>하였다.

## 2. 단위평면구성과 소비자의 의견의 상관성

### 2.1. 단위평면의 연도별, 면적별 특성

조사된 862개 브랜드 아파트 판상형 단위평면의 연도별, 면적별 특성<표 2>중 특별히 변화된 사항은 2007년이 다른 연도에 비해 많은 건설이 이루어져 234개 평면에 육박하고 있고 2008년에는 대폭 줄었다<sup>8)</sup>는 것이다. 건설된 단위평면의 면적별 수를 보면 99~131m<sup>2</sup>면적대가 가장 많았고 이는 매년 약 43~53% 비율로 거의 반복으로 늘어나는 숫자였으며 132~164m<sup>2</sup> 면적대는 약 30~38%로 그 다음이었다. 마지막으로 66m<sup>2</sup>~98m<sup>2</sup>면적대가 약 16%로 가장 적었는데 2006년에는 11%로 특히 적었다.

<표 2> 단위평면의 연도별, 면적별 사례 수

연도 \ 면적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n	%	n	%	n	%	n	%	n	%	n	%
66~98m <sup>2</sup>	21	14.5	36	20.5	17	10.9	36	15.4	31	20.5	141	16.4
99~131m <sup>2</sup>	69	47.8	87	49.4	83	53.2	109	46.4	64	42.4	412	47.8
131~164m <sup>2</sup>	55	37.9	53	30.1	56	35.9	89	38.0	56	37.1	309	35.8
계	145	100	176	100	156	100	234	100	151	100	862	100

### 2.2. 단위평면구성과 소비자의 의견의 상관성

#### (1) Bay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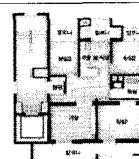
Bay수의 면적별, 연도별 변화를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Bay수의 변화

Bay수 \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f	%	f	%	f	%	f	%	f	%	
66~98m <sup>2</sup>	2	5	23.8	6	16.7	3	17.6	5	13.9	4	12.9
	2.5	0	0.0	0	0.0	0	0.0	0	0.0	1	3.2
	3	16	76.2	30	83.3	14	82.4	31	86.1	25	77.4
	3.5	0	0.0	0	0.0	0	0.0	0	0.0	2	6.5
99~131m <sup>2</sup>	2	1	1.4	7	8.0	4	4.8	11	10.1	4	6.3
	2.5	0	0.0	0	0.0	2	2.4	2	1.8	2	3.1
	3	60	87.0	74	85.1	70	84.3	56	51.4	38	59.4
	3.5	4	5.8	5	5.7	4	4.8	20	18.3	5	7.8
	4	4	5.8	1	1.1	3	3.6	20	18.3	15	23.4
	3	17	30.9	16	30.2	18	32.1	12	13.5	13	23.2
132~164m <sup>2</sup>	3.5	0	0.0	1	1.9	3	5.4	3	3.4	1	1.8
	4	37	67.3	36	67.9	35	62.5	70	78.7	41	73.2
	4.5	1	1.8	0	0.0	0	0.0	4	4.5	1	1.8

#### 1) 66m<sup>2</sup>~98m<sup>2</sup> 면적대

2004년 이후 공급된 브랜드 아파트 66~98m<sup>2</sup> 면적대에서 Bay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분양가 자율화 이전에 66~98m<sup>2</sup>에서는 3Bay는 나타나지 않았는데<sup>9)</sup> 2004년에는 3Bay가 76%였고 이후 2005년 83%, 2006년 82%로 이어져 현재는 66~98m<sup>2</sup> 면적대에서도 3Bay가 일반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08년에는 2.5Bay, 3.5Bay도 소수 나타나 Bay수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Bay의 수는 면적이 작은 아파트에서 문제가 되므로 이에 관한 연구도 주로 66~98m<sup>2</sup>에서 이루어졌다. 85m<sup>2</sup>(66~98m<sup>2</sup>)로 고정된 면적의 침실 수 3개인 평면에서 2Bay보다 3Bay에 더 만족한다는 연구결과<sup>10)</sup>가 있었고, 역시 85m<sup>2</sup>의 3Bay와 4Bay를 조사한 연구<sup>11)</sup>에서도 3Bay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더 높다는 결과여서 이 면적대 브랜드 아파트의 Bay 수는 소비자 의견과 맥을 같아하고 있었다.



구리 인창 2차 e-편한세상: 79.2m<sup>2</sup>



군포 대야미 e-편한세상: 79.2m<sup>2</sup>

<그림 2> 66m<sup>2</sup>~98m<sup>2</sup> 면적대의 대표적 사례

#### 2) 99m<sup>2</sup>~131m<sup>2</sup> 면적대

99~131m<sup>2</sup> 면적대의 Bay수는 2Bay에서 4Bay까지 다양하였고 그 중 3Bay가 가장 많았다. 3Bay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4년~2006년에는 85% 내외였으나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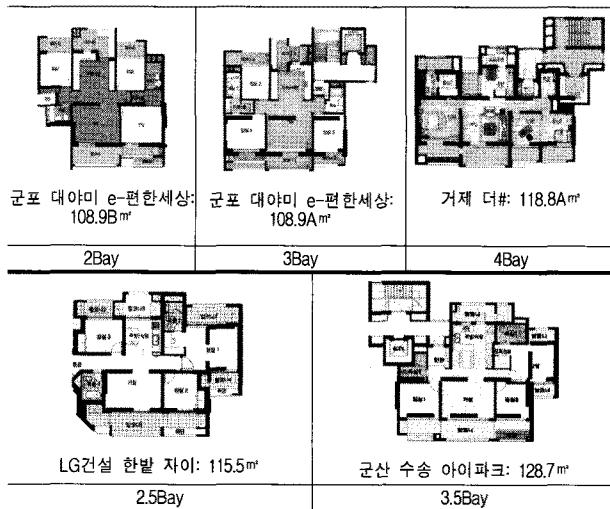
- 7) 소비자의 의견을 조사함에 있어 각 논문의 조사대상 아파트 소재지가 다양해서 오는 상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수도권 중심의 우리나라 아파트 평면구성의 보편적 경향이 지방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지역 차별화가 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한민정, 경남지역 중대형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9권 5호, 2008, p.9)에 의거하여 구분을 두지 않았으며 따라서 각 논문의 조사대상 아파트 소재지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소비자 의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조사방법,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가 각각 다른데 이들이 실제 평면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우선적으로 변수화 작업이 필요하였다. 그 과정은 먼저 실제 공급된 평면에서 조사할 세부항목(Bay 수, 전면위치 공간, 거실-식당-부엌의 배치, 현관-거실-식당-부엌의 개방성)을 추출하고, 다음으로 이를 항목의 소비자의 견해 있는 선형연구를 조사하여 각 항목에 나타난 내용을 추출하고 실제 평면과 대조하여 그 상관성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 8) 2008년에 8개 건설사 중 포스코 건설에서는 한 건의 아파트도 건설되지 않아 단위평면의 숫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9) 홍종우,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의 변화특성,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3, p.28

10) 방정훈·오찬우, 전면 2실형과 3실형 아파트의 평면특성 및 만족도 비교,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6권 2호, 2004, p.35

11) 추선경 외, 전면3실형과 전면4실형 아파트의 평면특성 및 거주 후 평가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2(추계), 2008, p.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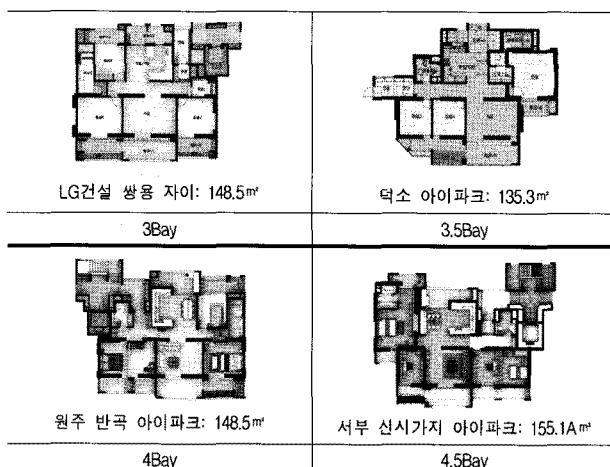
과 2008년에 각각 51%, 59%로 대폭 줄었다. 대신 4Bay가 18%, 23%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2.5Bay는 2006년부터 매년 2~3%에 달하고 3.5Bay는 2004년부터 약 5%대를 넘나들다가 2007년에 18.3%로 대폭 늘었다. 이와 같이 99~131m<sup>2</sup> 면적대에서 Bay수는 매우 다양하나 이에 관한 소비자 의견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림 3> 99m<sup>2</sup> ~ 131m<sup>2</sup> 면적대의 대표적 사례

### 3) 132m<sup>2</sup> ~ 164m<sup>2</sup> 면적대

132~164m<sup>2</sup> 면적대에서는 4Bay가 65%대를 넘나들다가 역시 2007년에 거의 80%대로 느는 등 대표적 Bay형 식임을 알 수 있다. 한편, 132~164m<sup>2</sup> 면적대에서도 3.5Bay, 4.5Bay가 연도 별로 한두사례 또는 서너사례씩 나타나고 있었다. 이 면적대에서도 소비자 의견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림 4> 132m<sup>2</sup> ~ 164m<sup>2</sup> 면적대의 대표적 사례

## (2) 전면배치 공간

남향선호가 절대적인 한국에서 주요실의 배치는 매우 중요하므로 공급되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남향으로 위치한다. 그러나 모든 아파트가 남향은 아니어서 본 연구에서는 남향배치를 전면배치로 대신하였다. 전면배치 된

공간의 연도별, 면적별 변화를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전면배치 공간의 변화

n=862

전면배치	2004		2005		2006		2007		2008	
	f	%	f	%	f	%	f	%	f	%
거실	21	100	36	100	17	100	36	100	31	100
안방	21	100	36	100	17	100	36	100	29	93.5
침실1	16	76.2	30	83.3	14	82.4	31	86.1	28	90.3
침실2	0	0.0	0	0.0	0	0.0	0	0.0	2	6.5
부엌/식당	0	0.0	0	0.0	0	0.0	0	0.0	0	0.0
거실	69	100	87	100	83	100	109	100	64	100
안방	66	95.7	78	89.7	73	88.0	109	100	64	100
침실1	48	69.6	62	71.3	52	62.7	103	94.5	60	93.8
침실2	4	5.8	4	4.6	6	7.2	40	36.7	20	31.3
부엌/식당	1	1.4	4	4.6	8	9.6	6	5.5	2	3.1
거실	55	100	53	100	56	100	89	100	56	100
안방	53	96.4	53	100	55	98.2	88	98.9	56	100
침실1	55	100	53	100	53	94.6	88	98.9	56	100
침실2	50	90.9	51	96.2	48	85.7	79	88.8	43	76.8
침실3	1	1.8	0	0.0	0	0.0	4	4.5	1	1.8
부엌/식당	1	1.8	0	0.0	2	3.6	4	4.5	2	3.1

### 1) 66m<sup>2</sup> ~ 98m<sup>2</sup> 면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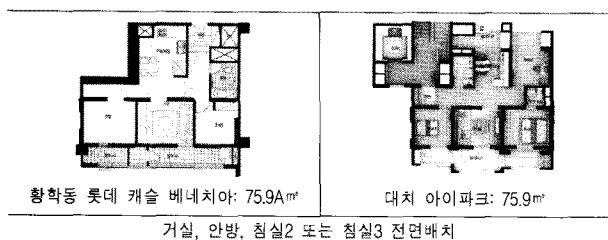
66~98m<sup>2</sup> 면적대에서 거실은 연도를 막론하고 100% 전면 배치되었고 안방<sup>12)</sup>도 2008년을 제외하면 100%였으며 부엌/식당은 전면배치 된 사례가 전무하였다. 한편 안방 외 침실<sup>13)</sup>은 2004년, 76%이던 것이 2008년, 90%가 넘어서고 있어 전면배치 되는 수가 많아졌는데 이는 2Bay에서 3Bay로 변화하면서 오는 현상이라 하겠다. 이에 대한 소비자 의견은 거실>안방>자녀방(침실1)순으로 전면배치의 의견이 많았고 안방 후면배치와 전면배치 평면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sup>14)</sup>에서는 후면배치 안방이 전면배치보다 선호도가 낮지만 후면배치 안방을 선호하는 계층이 일정하게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공급된 아파트에서는 2008년에 두 사례가 나타났을 뿐이다. 또한 85m<sup>2</sup>를 전후한 면적의 식당/부엌 전면배치와 후면배치를 대상으로 한 연구<sup>15)</sup>에서 식당/부엌 전면배치에 대한 항후의 선택을 보면 식당/부엌 후면배치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높지만 식당/부엌 전면배치를 선택하겠다는 비율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이 면적대에서 부엌/식당의 전면배치는 하나도 찾아 볼 수 없어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12) 아파트 단위평면의 실 명칭은 분양하는 건설사에서 제각각 명명하고 있어 기준이 없다. 그러나 제일 큰방에 안방이라는 명칭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박수빈 외, 아파트 평면유형에 따른 부부 전용공간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 논문집 제23권 2호, 2003, p.13) 본 연구에서도 안방으로 명명하였다.

13) 본 연구에서는 안방 외 침실을 크기에 따라 침실 1, 침실 2, 침실 3으로 명명하였다.

14) 김상희·안주영, 경남지역 전면 3칸형 아파트의 공간이용행태 및 거주 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13권 4호, 2002, pp.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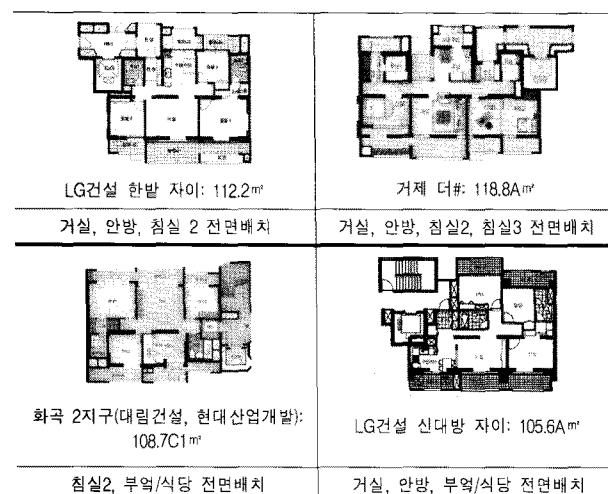
15) 박인석·김진환, 안방 후면배치 아파트평면의 거주자 반응 평가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18권 제2호, 2002, pp.43~44



<그림 5> 66m<sup>2</sup> ~ 98m<sup>2</sup> 면적대의 대표적 사례

## 2) 99m<sup>2</sup> ~ 131m<sup>2</sup> 면적대

99 ~ 131m<sup>2</sup> 면적도 연도를 막론하고 거실은 100% 전면 배치였고 안방은 2007년과 2008년에 전부 전면배치여서 후면배치가 없었으나 2005년, 2006년에는 각각 10%, 12%가 후면배치 되었다. 침실1과 침실2의 전면배치는 2007년과 2008년에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는 물론 Bay 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한편, 부엌/식당 전면배치는 2004년 1.4%, 2005년 4.6%, 2006년 9.6%로 점점 증가하였으나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5.5%, 3.1%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는 66 ~ 98m<sup>2</sup> 면적대와 비교해 볼 때 소수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전면배치에 대한 소비자 의견은 66 ~ 98m<sup>2</sup> 면적대와 같이 거실 > 안방 > 자녀방 (침실1) 순이었고 거의 모든 연구의 공통된 결과였다. 그러나 이들과 다른 의견도 있었는데 자녀방 전면/안방 후면(30%), 부엌/식당 전면/자녀방 후면(25%)을 원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연구<sup>16)</sup>와 부엌/식당 전면배치에 대한 선호가 31%라는 연구<sup>17)</sup>도 있었다. 따라서 실제 공급된 공간의 전면 또는 후면배치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긴 하나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6> 99m<sup>2</sup> ~ 131m<sup>2</sup> 면적대의 대표적 사례

16) 오혜경·함민정, 최근 입주된 수도권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본 규모별 실 구조 요구 분석,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19권 5호, 2008. p.24

17) 최병숙 외, 대전지역 아파트 단위주호 계획에 대한 거주자의 주거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v.20 n.5(2009-10)

## 3) 132m<sup>2</sup> ~ 164m<sup>2</sup> 면적대

132 ~ 164m<sup>2</sup> 면적대에서도 연도를 막론하고 거실은 100% 전면 배치되었고 안방은 2005년과 2008년에 100%, 그 외의 연도에는 한 두 사례씩 후면배치가 나타났다. 침실1은 안방과 거의 같은 양상이었고 침실2 또한 76.8% ~ 96.2%로 상당수 전면배치 되었다. 부엌/식당 전면배치는 99 ~ 131m<sup>2</sup> 면적대보다 활발하지 않았는데 2005년에는 한건도 없었고 그 외의 연도에도 1.8% ~ 4.5%였다. 한편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은 자녀방 남향/안방 북향: 31.3%, 거실/부엌/식당 남향/안방과 자녀방 북향: 20.6%이어서 안방 후면배치나 공동공간 전면배치 요구 비율이 비교적 높다<sup>18)</sup>. 이를 감안한다면 보다 많은 수의 안방 후면배치와 부엌/식당 전면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7> 132m<sup>2</sup> ~ 164m<sup>2</sup> 면적대의 대표적 사례

## (3) 거실-식당-부엌의 공간구성

거실-식당-부엌은 크게 LDK, L-DK, LD-K, L-D-K로 분류된다. 조사결과 거실-식당-부엌은 전 면적에서 모두 L-DK가 우세하였으며 이는 소비자 의견에서도 같았는데 즉, 거실-식당-부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거의 모든 연구에서 L-DK를 선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99 ~ 131m<sup>2</sup> 면적대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의 의견 중 LDK 또는 LD-K의 선호<sup>19)</sup>가 있었고 면적을 밝히지 않고 조사한 다음의 두 연구에서는 10 ~ 20%대의 소수이지만 LDK와 LD-K를 선호한다<sup>20)</sup>고 하였고 또 LDK, LD-K, L-D-K 선호가 약 6 ~ 9%<sup>21)</sup>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공급된 거실-식당-부엌의 구성은 절대적 숫자인 L-DK의

18) 오혜경·홍이경, 거주자특성에 따른 아파트 각 실의 요구 및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6호, 2008, pp.161 ~ 162

19) 최병숙 외, 앞의 논문, pp.341 ~ 342

20) 오혜경·김도연, 고급형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의 견해 및 선호경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0권 5호, 2002, p.33

21) 오찬우 외, 아파트 거주자의 평면유형별 평면구성에 대한 요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0권 11호, 2004, p.26

에는 전 면적에 걸쳐 LDK 뿐이어서 보다 다양한 거실-식당-부엌의 구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거실-식당-부엌의 면적별, 연도별 변화를 보면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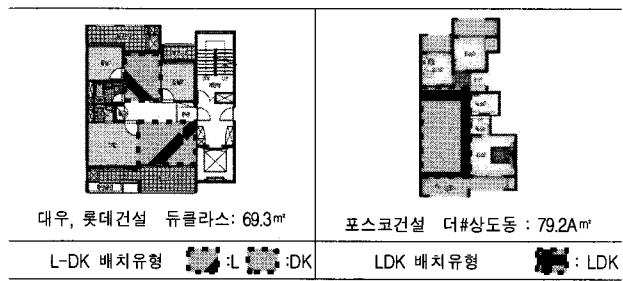
<표 5> 거실-식당-부엌 공간구성의 변화

n=862

연도 LDK구성	2004		2005		2006		2007		2008	
	f	%	f	%	f	%	f	%	f	%
66~98m <sup>2</sup> LDK	21	100	32	88.9	17	100	35	97.2	31	100
99~131m <sup>2</sup> LDK	0	0.0	4	11.1	0	0.0	1	2.8	0	0.0
132~164m <sup>2</sup> LDK	69	100	85	97.7	78	94.0	102	93.6	62	96.9
	0	0.0	2	2.3	5	6.0	7	6.4	2	3.1
	53	96.4	53	100	50	89.3	85	95.5	54	96.4
	2	3.6	0	0.0	6	10.7	4	4.5	2	3.6

### 1) 66m<sup>2</sup>~98m<sup>2</sup> 면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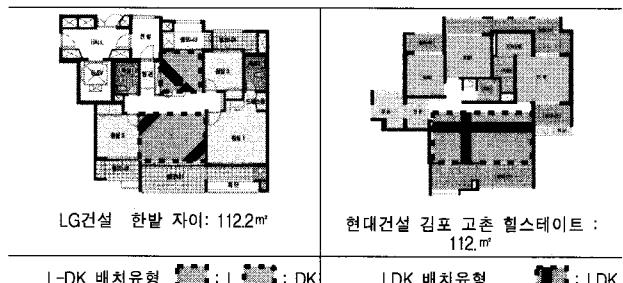
66~98m<sup>2</sup> 면적대에서는 L-DK가 2004년, 2006년, 2008년에 모두 100%였고 그 외 2005년과 2007년에 LDK가 나타났는데 각각 4사례(11.1%), 1사례(2.8%)였다.



<그림 8> 66m<sup>2</sup>~98m<sup>2</sup> 면적대의 대표적 사례

### 2) 99m<sup>2</sup>~131m<sup>2</sup> 면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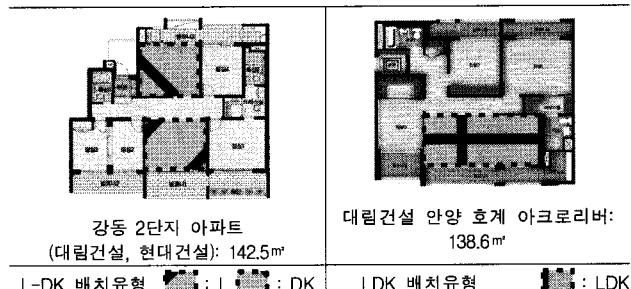
99~131m<sup>2</sup> 면적대에서도 L-DK가 2004년에 100%였으나, 그 외의 연도에도 95%를 넘나들고 있고 이의 대체 형태로는 역시 LDK였다.



<그림 9> 99m<sup>2</sup>~131m<sup>2</sup> 면적대의 대표적 사례

### 3) 132m<sup>2</sup>~164m<sup>2</sup> 면적대

132~164m<sup>2</sup> 면적대에서는 L-DK가 2005년 100%였고, 2006년의 89.3%를 제외한 연도에는 99~131m<sup>2</sup> 면적대와 같이 95%를 넘나들고 있었다. 여기에서도 L-DK 외의 형태는 LDK뿐이었다.



<그림 10> 132m<sup>2</sup>~164m<sup>2</sup> 면적대의 대표적 사례

### (4) 현관-거실, 거실-식당-부엌의 개방성

본 연구에서 현관-거실, 거실-식당-부엌의 개방과 폐쇄<sup>22)</sup>는 <그림 11, 12, 13>과 같으며 이의 면적별, 연도별 변화를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현관-거실, 거실-부엌/식당의 개방성 변화

n=862

개방성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f	%	f	%	f	%	f	%	f	%
66~98m <sup>2</sup>	현관 개방	7	33.3	15	41.7	10	58.8	26	72.2	19	62.3
	폐(중문)	0	0.0	0	0.0	0	0.0	0	0.0	3	9.7
	거실 캐(꺾임)	14	66.7	21	58.3	7	41.2	10	27.8	9	29.0
	거실 개 전체	0	0.0	2	5.6	0	0.0	12	33.3	15	48.4
99~131m <sup>2</sup>	개방	21	100	34	94.4	17	100	24	66.7	16	51.6
	폐쇄(문)	0	0.0	0	0.0	0	0.0	0	0.0	0	0.0
	현관 개방	12	17.4	13	14.9	17	20.5	58	53.2	44	68.7
	폐(중문)	0	0.0	0	0.0	0	0.0	12	11.0	5	7.8
132~164m <sup>2</sup>	거실 캐(꺾임)	58	84.1	74	85.1	66	79.5	39	35.8	15	23.4
	거실 개 전체	4	5.8	2	2.3	5	6.0	81	74.3	44	68.8
	개방	61	88.4	85	97.7	74	89.2	28	25.7	18	28.1
	폐쇄(문)	1	1.4	0	0.0	4	4.8	0	0.0	2	3.1
	현관 개방	1	1.8	0	0.0	0	0.0	61	68.5	39	69.7
	폐(중문)	0	0.0	9	17.0	3	5.4	3	3.4	0	0.0
	거실 캐(꺾임)	54	98.2	44	83.0	53	94.6	25	15.7	17	30.4
	거실 개 전체	1	1.8	0	0.0	3	5.4	26	29.2	14	25.0
	개방	46	83.6	45	84.9	44	78.6	59	66.3	37	66.1
	폐쇄(문)	8	14.5	8	15.1	9	16.1	4	4.5	5	8.9

### 1) 66m<sup>2</sup>~98m<sup>2</sup> 면적대

먼저, 현관-거실의 개방성 여부를 보면 2004년과 2005년에는 구조적으로 꺾은 폐쇄형이 각각 66.7%, 58.3%로 더 많았으나 2006년 이후 개방이 그 만큼 더 많아져 역전되었다. 한편 현관과 거실이 중문으로 폐쇄된 평면은 2008년에만 9.7%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면적이 작은

22) 현관-거실 개방: <그림 10의 ①>과 같이 현관의 직선상에 거실이 보이거나 <그림 11의 ①>과 같은 구조도 포함하였다.

현관-거실 폐쇄: 중문 또는 <그림 10의 ③>과 같이 복도로 꺾이거나 <그림 11의 ③>과 같이 어긋나 꺾인 구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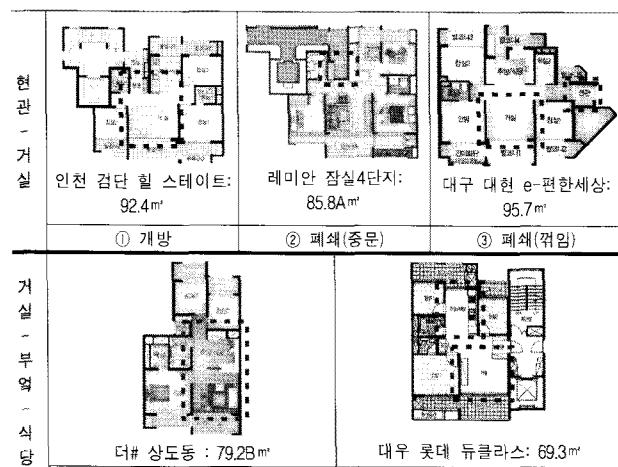
거실-부엌/식당 개방: <그림 10의 ④><그림 11의 ④>와 같이 거실에서 부엌/식당이 그대로 보이는 구조를 말한다. 이때 간이 식탁이나 낮은 가구가 있어도 시작적으로 오픈되면 개방으로 분류하였다.

거실-부엌/식당 반개방: <그림 10의 ⑤>와 같이 거실과 부엌/식당이 반 정도 걸쳐져 있는 구조를 말한다.

거실-식당/부엌 폐쇄: 문으로 명확하게 폐쇄된 구조를 말한다.

평면에는 적용되지 않는 구성이어서 의외였다. 현관-거실의 개방성 여부에 대한 소비자 의견은 개방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는 연구<sup>23)</sup>와 ‘현관에 들어서면 거실이 보이는 것이 좋다’가 49.1%, ‘현관은 거실에서 잘 들여다보이지 않아야 한다.’가 38.6%인 연구<sup>24)</sup>로 그 결과가 상반되었고 실제 공급된 평면은 2006년을 기점으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전환되어 소비자 의견과 부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2003년과 2004년에 발표된 논문이어서 이에 대한 최근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거실-부엌-식당의 개방성 여부를 보면 폐쇄는 하나도 없었고 2004년~2006년에 반개방이 95%~100%로 절대적 우세였으나 2007년, 2008년에는 각각 66.7%, 51.6%로 줄고 대신 전체 개방된 평면이 늘어났다. 이에 대한 소비자 의견은 거실에서 부엌/식당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과 보여도 상관없다는 의견, 거실에서 식당은 보여도 괜찮고 부엌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한 비율(34.5%, 33.6%, 31.9%)이었다.<sup>25)</sup> 한편 다른 연구<sup>26)</sup>에서는 거실과 주방이 비 개방된 평면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이렇게 소비자는 거실과 부엌/식당의 비 개방에 대한 의견이 상당수 있으나 실제 공급된 아파트는 비 개방된 구성이 하나도 없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결과도 2003년과 2004년 발표 논문이어서 이에 대한 최근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11> 66m<sup>2</sup> ~ 98m<sup>2</sup> 면적대의 대표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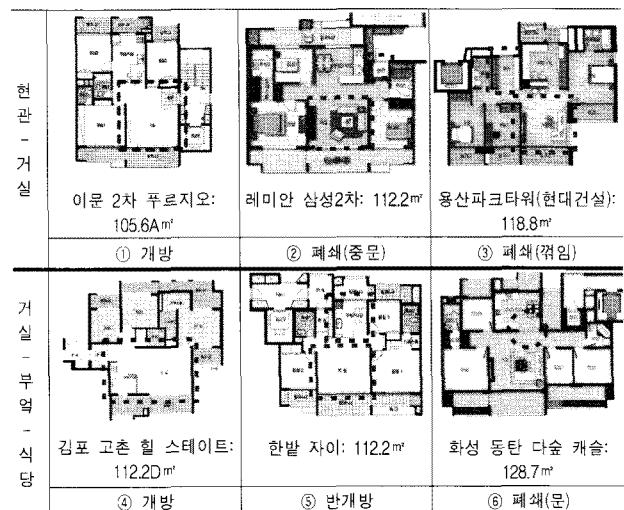
## 2) 99m<sup>2</sup> ~ 131m<sup>2</sup> 면적대

먼저, 현관-거실의 개방성 여부를 보면 구조적으로 꺾

- 23) 오찬옥 외, 컴퓨터 미디어와 컨조인트 분석방법을 이용한 소형아파트 평면구성요소에 대한 거주자 선호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5호, 2004, pp.59~60
- 24) 오찬옥, 지역성을 반영한 공동주거 평면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40호, 2003, p.81
- 25) 오찬옥, 앞의 논문, p.81
- 26) 오찬옥 외, 컴퓨터 미디어와 컨조인트 분석방법을 이용한 소형아파트 평면구성요소에 대한 거주자 선호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5호, 2004, pp.59~60

은 폐쇄형이 2004년~2006년에 80% 내외로 월등 많았으나 2007년과 2008년에는 개방이 53.2%, 68.7%로 더 많아졌다. 중문이 설치된 평면은 2007년과 2008년에 집중(11.0%, 7.8%) 되었고 이는 66m<sup>2</sup>~98m<sup>2</sup> 면적대(2008년만 나타남)와 유사하다. 현관-거실의 개방성 여부에 대한 소비자 의견은 현관과 거실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48.9%, 보이기를 요구하는 의견이 41.7%라고 한 연구<sup>27)</sup>와 현관에서 거실이 개방된 것을 선호한다는 연구<sup>28)</sup>도 있어 상반되었다. 그러나 역시 이들 연구결과도 2003년과 2004년 발표 논문이어서 이에 대한 최근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거실-부엌-식당의 개방성을 보면 거의 대부분 개방되어 있었고 이 중 2006년까지는 반개방이 대표적이거나 그 이후는 전체개방이 훨씬 많아졌다. 한편 거실-부엌/식당사이의 문은 2004년부터 격년으로 극소수 설치되었다. 거실-부엌-식당의 개방성에 대한 소비자 의견은 거실에서 식당은 보여도 괜찮다는 의견이 45%, 부엌/식당 모두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36.4%로 거실에서 특히 부엌이 보이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고<sup>29)</sup> 거실에서 식당/부엌이 보이지 않는 평면을 선호한다는 연구<sup>30)</sup>도 있었다. 이와는 다르게 거실에서 식당/부엌이 보여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연구자는 이를 주택규모가 넓어지면 거실과 식당/부엌의 거리가 확보됨에 따라 공간분리에 관한 요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sup>31)</sup> 이 두 연구는 각각 2002년, 2003년에 발표된 논문



<그림 12> 99m<sup>2</sup> ~ 131m<sup>2</sup> 면적대의 대표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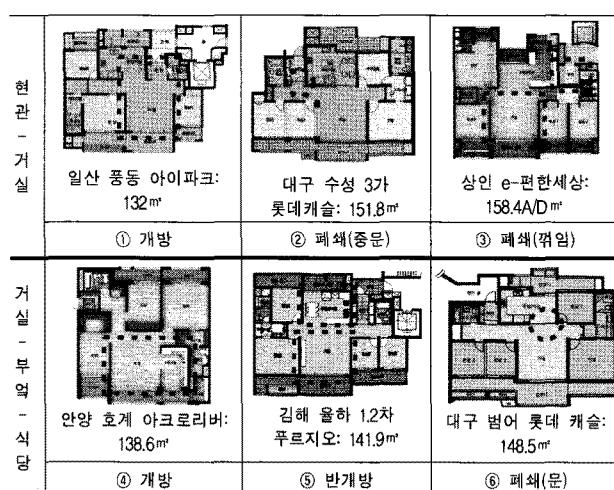
- 27) 오찬옥, 지역성을 반영한 공동주거 평면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40호, 2003, p.81
- 28) 오찬옥, 거주자가 선호하는 아파트 평면구성 유형,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2호, 2004, p.115
- 29) 오찬옥, 지역성을 반영한 공동주거 평면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0호, 2003, p.81
- 30) 오찬옥, 거주자가 선호하는 아파트 평면구성 유형,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2호, 2004, pp.117~118
- 31) 김진균 외, 아파트 공간구성유형에 따른 거주자 공간사용 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8권 11호, 2002, p.57

으로 상반된 의견을 보였는데 실제 공급된 아파트는 전체 또는 반개방이 대부분이어서 뒤의 연구와 부합되고 있었다. 한편 이 면적대에서 거실과 식당/부엌 사이의 문 설치에 대해 58.4%의 소비자는 부정적<sup>32)</sup>이었고 소수만이 찬성 하였는데 실제 공급된 아파트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었다.

### 3) 132m<sup>2</sup>~164m<sup>2</sup> 면적대

먼저, 현관-거실의 개방성은 구조적으로 꺾은 폐쇄형이 2004년~2006년 95% 내외로 월등 많았으나 2007년, 2008년에 개방형이 더 많아져(68.5%, 69.7%) 99m<sup>2</sup>~131m<sup>2</sup> 면적대와 유사하였다. 이에 대한 소비자 의견은 현관에서 거실의 시각적 차단이 필요하다는 것<sup>33)</sup>이어서 최근 공급된 단위평면과는 차이가 나고 있었다. 이 역시 2004년에 발표된 연구여서 소비자의 의견에 대한 최근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중문이 설치된 평면은 2005년에 17%로 비교적 많았고 2006, 2007년에는 소수였으며 그 외에는 한건도 없었다.

다음, 거실-부엌-식당의 개방성 여부는 66m<sup>2</sup>~98m<sup>2</sup>나 99~131m<sup>2</sup> 면적대와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문으로 폐쇄된 평면이 2004년~2008년 내내 지속되고 있다는 것과(15% 내외) 다른 평면과 같이 2007년과 2008년에 반개방에서 개방으로 전환되지 않고 반개방형이 2004년에 83.6%였고 매년 약간씩 줄어 2008년에 66.1% 이진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2007년과 2008년에 전체개방이 각각 29%, 25%로 그 이전에 비해 상당히 늘었다. 이에 대한 소비자 의견은 거실과 식당/부엌 사이에 부분적 차단이 필요하며 식당과 부엌 사이에 매립형문의 설치를 요구하



<그림 13> 132m<sup>2</sup>~164m<sup>2</sup> 면적대의 대표적 평면사례

32) 이병영·최경란, 주거 공간 내 가족 유형별 사용행태에 따른 실내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5권 5호, 2003, p.121

33) 정은주 외, 소비자 소집단 워크샵을 통한 주부들의 공간요구사항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6권 2호, 2004, p.90

기도 하였는데<sup>34)</sup> 실제 공급된 단위평면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이 면적대에서는 비교적 소비자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사에서 공급한 아파트 단위평면의 공간구성이 학술연구에서 제시하는 소비자 의견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그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Bay의 수를 보면 조사된 아파트 단위평면의 모든 면적에서 Bay수가 늘어나고 있었다. 정해진 아파트 규모에서 Bay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전면 폭이 길어지고 측면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이며 이는 용적률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ay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파트 공급업체들이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0.5Bay라는 새로운 시도를 한 예에서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즉 2.5, 3.5, 4.5Bay는 실이 전면에 전부 배치되지 못하고 반만 배치되는 것이지만 좀 더 많은 실을 전면 배치하려는 공급업체들의 노력이라 판단되며 이는 2007년과 2008년에 특히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적용될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공급업체들의 다양한 시도는 자체 노력의 결과라 보여 지며 학계가 공급업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 Bay수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Bay수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거나 이상적 Bay수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전면배치 된 공간을 보면 거실과 안방은 거의 대부분 전면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안방 후면배치와 안방 외 침실과 부엌/식당 전면배치는 소수만 있었다. 이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으나 소비자는 이보다 많은 수의 부엌/식당 전면배치와 안방 후면배치를 요구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안방 후면배치나 부엌/식당 전면배치에 관한 학술연구가 소비자의 의견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배치의 방법까지 제안 할 수 있는 연구여야 공급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거실-부엌-식당의 구성을 보면 전 면적대에 걸쳐 L-DK가 대세이며 이는 소비자의 의견과 같은 방향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 외에도 LDK, L-D-K, LD-K에 대한 선호가 있다. 이 중 LDK는 소수 적용되고 있으나 L-D-K나 LD-K는 한건의 사례도 없어 다양한 거실-식당-부엌의 구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학계의

34) 정은주 외, 앞의 논문, p.91

연구 내용은 소비자가 LDK, L-D-K, LD-K를 요구한다고만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구성이나 배치방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공급업체가 이들 구성을 제공하려해도 정보가 부족하여 선뜻 시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현관-거실, 거실-부엌/식당의 개방성여부에서 먼저, 현관-거실을 보면 전면적대에 걸쳐 2006년 또는 2007년을 기점으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66m^2 \sim 131m^2$  면적대의 소비자 의견은 개방과 폐쇄가 엇갈리고 있고  $132m^2 \sim 164m^2$  면적대는 폐쇄의 의견으로 실제 공급된 단위평면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2002년~2004년에 발표된 논문이어서 소비자 의견에 대한 최근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거실-부엌-식당은 거의 대부분 개방되어 있었는데 2006년 또는 2007년을 기점으로 반개방에서 개방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66m^2 \sim 131m^2$  면적대의 소비자 의견은 폐쇄가 좀 더 우세하여 실제 공급된 단위평면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132m^2 \sim 164m^2$  면적대에서는 ‘부분적 차단’ 또는 ‘매립형문의 설치’의견이 많았는데 실제 공급된 단위평면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어 바람직하였다. 그러나 이들 역시 2002년~2004년에 발표된 논문이어서 최근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공급업체와 소비자 의견에 대한 학술연구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경우가 상당 수 있다. 즉, Bay수와 현관-거실, 거실-부엌/식당의 개방성여부는 학계가 공급업체를 따라가지 못하며 전면배치 및 거실-부엌-식당 구성은 공급업체가 학계의 소비자의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서로간의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 하나의 이유는 학계의 연구들이 각각 조사를 실시한 시기가 다르고 조사한 지역이 달라 공급업체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견에 관한 연구를 설계함에 있어 조사할 항목을 추출한 후 일정한 주기를 두고 일관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급업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다가갈 수 있는 이상적 아파트 공간이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1. 대한주택공사, 주택통계편람, 서울: 대한주택공사, 2002
2. 세진기획(편), 아파트 백과(상·하권), 2004
3. 이숙영·이연숙, 우리나라 수도권 아파트의 주호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21 n. 2005
4. 한민정, 경남지역 중대형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9권 5호, 2008

5. 홍종우,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의 변화특성,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3.
6. 방정훈·오찬옥, 전면 2실형과 3실형 아파트의 평면특성 및 만족도 비교,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6권 2호, 2004
7. 추선경 외, 전면3실형과 전면 4실형 아파트의 평면특성 및 거주 후 평가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2(추계), 2008
8. 김상희·안주영, 경남지역 전면3칸형 아파트의 공간이용태 및 거주 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13권 4호, 2002
9. 박인석·김진환, 안방 후면배치 아파트 평면의 거주자 반응 평가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제18권 제2호, 2002.4
10. 오혜경·함민정, 최근 입주된 수도권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본 규모별 실구성 요구분석,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19권 5호, 2008
11. 최병숙 외, 대전지역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권, 2008.1
12. 오혜경·홍이경, 거주자특성에 따른 아파트 각 실의 요구 및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6호, 2008
13. 오혜경·김도연, 고급형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의 견해 및 선호경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5호, 2002
14. 오찬옥 외, 아파트 거주자의 평면유형별 평면구성에 대한 요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11호, 2004
15. 오찬옥 외, 컴퓨터 미디어와 컨조인트 분석방법을 이용한 소형 아파트 평면구성요소에 대한 거주자 선호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권 5호, 2004
16. 오찬옥, 지역성을 반영한 공동주거 평면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40호, 2003
17. 오찬옥 외, 거주자가 선호하는 아파트 평면구성 유형,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3권 2호, 2004
18. 김진균 외, 아파트 공간구성유형에 따른 거주자 공간사용 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권 11호, 2002
19. 이병영·최경란, 주거 공간 내 가족 유형별 사용행태에 따른 실내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5권 5호, 2003
20. 정은주 외, 소비자 소집단 워크샵을 통한 주부들의 공간요구사항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6권 2호, 2004

[논문접수 : 2010. 08. 30]

[1차 심사 : 2010. 09. 16]

[2차 심사 : 2010. 09. 30]

[3차 심사 : 2010. 10. 05]

[제재확정 : 2010. 10. 08]